

해외 파견대학	프랑스 / 엑스마르세유대학	해외파견대학 전공	ALLSH
파견기간	☐ 1학기 ☒ 1년		
학기 시작일	2025/09/15	학기 종료일	2026/04/27
출국일	2025/08/19	귀국일	2026/06/19
1.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수업	이수과목	1학기	- Mediation linguistique litterature et culture coreenne (한국 문화) - Geopolitique de la Coree (한국 지정학) - Medias coreens (한국 미디어) - Francais niveau B1 (유학생을 위한 프랑스어 B1)
		2학기	- Francais niveau B2 (유학생을 위한 프랑스어 B2) - Langue coreenne de recherche (한국학과 석사 번역 수업) - Civilisation francaise (유학생을 위한 프랑스 문화)
	수업방식	TD(소그룹), 양방향 수업	
	시험방법	한국 문화: 기말 객관식 (이례적인 케이스) 한국 지정학+미디어(두 과목이지만 과목 자체는 한 과목): 논술형 유학생 대상 수업: 필기 2회(처음은 빈칸 채우는 쉬운 시험, 두 번째는 논술형) + 발표(PPT, 5분) 한국학과 석사 번역: 논술형 + 발표(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외워서 독백+질의응답)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유학생 대상 프랑스어 수업은 B2 수업 이상을 들어야 다른 수업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B1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밖에 들지 못한다. 한국학과 프랑스인 교수님(학과 교수 중 유일한 프랑스인 교수) 수업은 매우 비추한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국가적인 모욕을 들었다. 한국인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다. 특히 교환학생 사이에서는 수강하지 말라는 말이 퍼졌다.	
그 외 활동 (해당되는 경우 작성)	동아리		
	문화프로그램	- Tandem(언어교환 프로그램). 프랑스인 학생과 1:1 매칭되어 한 학기 6회 이상, 1시간 이상 만남을 갖고 매회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만났고, 대화 주제는 무엇이었는데 작성하면 된다. 파견교 학생들은 0.5학점을 추가로 받지만, 교환학생은 추가 학점을 받을 수는 없다. 활동 처음과 마지막에 담당 선생님과 인터뷰를 한다. 아주 간단한 인터뷰이며, 언어교육부 담당자님이 한국인이셔서 한국어로도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신청은 개강 첫 주부터 언어교육부 사무실 컴퓨터로 할 수 있다. 파트너를 잘 만나면 언어 교환에 도움이 되지만, 적극적이지 않은 파트너와 매칭된 다른 학생들을 보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후기도 있었다. - Cafe des langues(상시 언어교환 프로그램). 매주 화, 목 12-14시에 본인이 원하는 교환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언어교육부 사무실에서 해당 언어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면 언어와 국기가 그려져있는 종이를 주신다. 그걸 가지고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문앞에 붙이면 된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희망자가 많아 이미 문앞에 그 종이가 붙어있고 사람도 많다. 한국어는 그냥 붙여놓고 점심시간에 쉬어도 된다. 가끔 파견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는 모두 본인 자유이다.
	기타	
교내편의시설	- 식당: 11시 30분 - 14시 운영. 법대 건물 앞, 도서관 앞 총 2개 있음. <전식+본식+디저트> 1유로(학생카드 Izly)/8유로(일반 카드) - 메디컬 센터: ENT - Rdv Centre de Sante (SSE)에서 예약, 의사선생님, 직원 선생님 모두 정말 친절하심.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본인의 경우 9유로 정도 지불함.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 사면 됨(약국은 학교 앞 Pharmacie des Nouvelles Facultes 추천함). - 도서관: 크고 좋음. 그런데 에어컨과 환기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답답하고 더움. 1층에서 프린트할 수 있음(도서관 사이트에 프린트 할 서류 업로드 - 프린트 기계에 카드 올려놓고 정보 입력 - 자동 결제(학생카드 Izly)/가격은 싼 편) 및 프린트 완료). 20시쯤 도서관 문 닫고, 휴일도 있어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음. 바로 앞에 식당과 매점이 있어 배고플 때 간식을 사먹을 수 있음. - 스포츠센터(학교에서 10분거리): 개강 전에 사이트(SUAPS)에서 원하는 운동 선착순으로 신청. 정말 다양한 운동이 있음. 신청할 때 두가지 버전이 있음. (Bonus/Packs: 이 중 하나는 신청하면 0.5학점 받을 수 있음(3회 미만 결석), 다른 하나는 상관 없음) - 자판기: 음료수, 커피, 간단한 간식, 물 등	
2. 귀국 준비		
기숙사/숙소 (기숙사참고사항,퇴 실 절차, 납부방법 및 시기)	퇴실 한 달 전부터 Crous 사이트에서 예약을 잡을 수 있다. Etat des lieux(퇴실 및 점검) 예약을 잡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 먼저 퇴실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간단한 청소 상태와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본다고 했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청소 상태를 많이 봤다. 담당자님께 열쇠 반납 후 퇴실하면 된다. 퇴실 후 MSE 계좌에 남아있는 돈과 보증금은 한 달 이내에 환불할 예정이라는 메일을 받았으나 아직 받지는 못했다.	
각종 해지 사항 (보험, 은행 등)	통신사(Free mobile): 매달 갱신 및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자동 해지되는 요금제를 이용하여 별다른 해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주거 보험(ADH): 자동 해지 은행(Revolut): 보증금 및 계좌에 남은 돈 수령을 위해 남겨놔다.	
기타참고사항		

3. 소감문 (1페이지로 작성, 맑은 고딕, 10포인트, 왼쪽 정렬)



파견교에 대한 정보 및 숙소에 대한 정보 (캠퍼스, 주변환경 등)	국제처 직원분들이 총 6분 정도 계신데, 그 중 비유럽권 직원분이 한 분이셔서 보기에 업무가 많은 것이 잘 느껴진다. 국제처 사무실은 보통 오전에만 열리며, 비EU 코디네이터는 금요일 재택근무고, 금요일은 아예 사무실을 닫아 일처리가 잘 안될 때가 많다. 그래도 업무시간에 메일 보내면 제법 빠르게 답변을 보내주신다. 또한 시험의 경우는 과목마다 다르지만, 프랑스 대학식 글쓰기에 익숙해질 것을 추천한다. 논리적으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쓰면 된다. 재시험은 2학기가 끝나고 6월 셋째 주에 진행한다. 본인의 경우 비자가 만료된 이후 재시험 기간이라 과목 교수님과 학교 행정실에 문의한 다음 4월 말에 개인적으로 재시험을 따로 치뤘다. 유학생 대상 수업 성적이 가장 먼저 나온다. 이는 파견교 국제처에서 성적 열람에 관한 메일을 받았다. 최종 성적은 언제 나오는지 안내 되어있지 않아 현지 학생들에게 물어봐야하고, 개인마다 성적 열람 날짜가 달라 성적 기간에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갈 것을 추천한다. 학교 건물이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럽다. 건물이 'ㄷ' 형태로 되어있으며 처음 두 달 정도는 계속 헷갈렸다. 구역별로 다양한 색이 칠해져 있으며,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강의실은 2층까지밖에 없어 익숙해질 수 있다. 1층으로 올라가면 C구역(보라색, 국제처)에 소파 등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친구들과 그곳에서 자주 만나고, 공강 시간과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며 공부하고 쉬었다. 기숙사는 자동 매칭되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었다. 본인은 Cite U de Cuques 기숙사, chambre comfort(10m², 275유로, caf 90유로 환급)에 배정되었다. 2학기(1월)에 파견 온 학생들을 보면 Cite Internationale de Cuques(T1, 스튜디오, 330유로)에 배정된 경우가 많았다. 학교와의 거리는 도보 10-15분 정도여서 매우 가까운 편이었다. 근처 Gazelles(엑상프로방스에서 가장 큰 기숙사) 기숙사가 있어 여러 프로그램(인스타그램 @spacegazelles)과 시설(식당(낮), 피자가게(저녁))을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	--



날씨, 숙소, 식사, 비용(물가) 등에 대한 정보	날씨가 굉장히 좋지만 본인이 머무는 동안에는 이상기후로 비가 이례적으로 많이 왔다. 그럼에도 공기가 맑고 하늘이 파랗다. 날이 좋을 때 피크닉하기 좋다.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가 있다. '미스트랄'이라는 기류인데, 리옹과 그쪽 산맥 근처에서 남부로 내려와 바람이 세다. 봄에는 꽃가루가 많다. 본인은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긴 했지만 액상프로방스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심했다(코막힘, 눈 간지러움, 마스크 착용 추천). 식사는 학식을 먹거나 주로 집에서 요리해 먹었다. 학식은 '전채+본식+디저트'가 1유로(학생 izly카드 / 일반 카드 8유로)이며, 디저트 중에는 초콜릿 에플레어가 맛있다. 맛이 별로 없지만 이 가격이면 참고 먹을 수 있다. 인당 1개씩 바게트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 간이 전체적으로 안되어 있어 소금과 후추로 본인 입맛에 맞게 조절했다. schuman 캠퍼스 법대 앞에 RUN 학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는 비둘기가 자주 들어온다.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매우 많다. 도서관 fenouilleres 식당도 가격은 똑같고, 그냥 먹을만하다. ALLSH 학부 0층에 카페테리아가 있다. 햄버거, 너겟,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식을 사먹을 수 있다. 가격대가 높고 맛도 별로 없다. 특히 햄버거가 진짜 비싸고 맛없다. 너겟은 좀 더 싸고 맛있다. 카페테리아에서 파는 파스타는 진짜 정말 맛없다. 그냥 맛 자체가 안느껴진다. 소금과 후추를 왕창 넣어도 맛이 안느껴지니 정말 비추한다. (현지 학생들은 맛있게 잘 먹는 모습이나.. 정말 비추한다) 평소에는 공용주방에서 요리했다. 한 층에 30개정도 방이 있어 사람이 꽤 많다. 한국인은 식사시간이 이곳보다 빨라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많진 않았다. 하이라이터로 요리하며, 화재 예방을 위해 5분마다 버튼이 꺼져 다시 눌러야한다(이 때문에 국물 요리를 하기는 조금 어려웠다). 주방에 전자레인지가 있어 편하게 사용했다(스튜디오 방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음). 공용주방은 매주 1회 직원분이 청소를 해주신다. 그럼에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생이 나쁨을 알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싱크대를 치운 경험도 적지 않다. 방마다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다. 냉장고는 1인이 사용하기 충분하며, 냉동고는 한뼘정도 되는 크기로 조금 작다. 물가는 프랑스 내에서도 비싼 축에 속한다.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라 전체적으로 비싸며 파리 물가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도시에 거주해보지 않아 얼마나 차이 나는지 체감은 못했다. 그럼에도 바게트와 크루아상 값은 1유로정도 차이가 나는 듯하다. 이 때문에 외식을 자주 할 수 없다. 비쌌던더러 그만큼 맛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
------------------------------------	--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정보

의료는 학교 메디컬 센터를 이용했다. ENT(학교 포털사이트) - Rdv Centre de Sante (SSE)에서 예약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납부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9유로 정도 지불함. 처방전 받고 약국에서 약 사면 된다(약국은 학교 앞 Pharmacie des Nouvelles Facultes 추천함). 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아 보여드리면 값이 할인되어 9유로를 지불하게 된 것이다. 보여드리지 않으면 30유로정도 지불해야한다.

은행은 레볼루트를 이용했다. 컨택리스로 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자주 이용했다. 계좌이체를 하기에 편리하다. 기숙사에 입주할 때도 IBAN(계좌번호)를 입력하기에 개설해야한다. 본인은 카드 발급비 때문에 실물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지만 발급하는걸 추천한다(최초 카드 발급비+배송비가 7-9유로 정도 했다).

교통은 프로방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발급해야한다. 시내 gare routiere 창구 또는 관광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비는 무료이며, 여권(신분증)과 증명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시내버스 1년권은 100유로(다자녀 인증하면 80유로)이다. 시내 곳곳 주요 정류장에는 버스카드 충전 기계가 있는데 10회에 9유로로 충전할 수 있다(종이 티켓도 발급 가능). 일반 체크카드 이용 시 1.2 - 2유로 정도 지불한다. 26세까지 카드 이용(충전) 시 마르세유 생샤를 역에 2유로로 24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오갈 수 있다(그 이상은 편도 7유로, L50번, 30분). gare routiere 에도 카드 충전 기계가 있으며, 그 기계들로 충전하여 시외(근교), TGV역, 공항 등으로 갈 수 있다.

시내버스는 'aix en bus'라는 사이트를 자주 참고했다. 버스 시간표와 당일 취소된 차편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버스가 제시 시간에 오는 일이 많지 않아 이 사이트로 확인해야한다. Cuques 기숙사 바로 앞에 M2 버스정류장이 있다. 작은 버스이며, 주로 시내를 돌아다닌다. 차편이 많지 않아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한다. 시내에서 이 버스를 타는 경우에는 보통 Cite U de Cuques(중점)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 자리가 있으면 앉는걸 추천한다. 다행히 이 작은 버스에도 에어컨은 있다.

기차역으로 이동할 때는 마르세유 생샤를 역으로 가는걸 추천한다. gare routiere에서 aix tgv는 a2버스, 생샤를은 l50버스로 탄다. aix tgv는 편도 4.2유로, 생샤를은 24시간동안 2유로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생샤를에 차편도 더 많다.

버스로 이동할 때는 두가지 옵션이 있다. 프로방스 근교로는 gare routiere에서 웬만한 곳을 갈 수 있다. 버스카드에 충전해서 찍고 갈 수 있다. 다른 도시(파리, 리옹 등 다양한 도시)로 가려면 krypton으로 가야한다. 블라블라카, 플릭스 버스 등이 있다. Arc de meyrans 기숙사에서는 krypton까지 얼마 안걸리는데, Cuques 기숙사에서는 15분정도 거리이며, krypton에서 기숙사로 오는 길이 가팔라서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다.

통신은 free mobile을 이용했다. 매장에 가서 요금제와 전화번호를 선택하고 직원분께서 유심을 바꿔 끼워주셨다. 본인은 매월 갱신 상품(19.99유로, 350기가)을 이용했다. 그러나 월 350기가는 너무 많아 월 160기가(월 12.99유로, 1년 계약) 요금제를 추천한다. 인터넷이 한국보다는 느리지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경우도 많긴 하나 유럽은 원래 그러니 익숙해져야 한다.



사전 준비와 현지 생활과의 차이, 문화충격 등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니 자취한다고 생각하고 짐을 싣다. 밥은 숙소 주변 마트(intermarche)에서 한국 쌀과 가장 비슷한 riz rond(사진 참고)을 사서 가져간 미니 밥솥으로 지어 먹었다. 1kg에 2유로대로 싼 가격이다. 한국 마트는 없지만 아시안 마트에 가면 웬만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다. 날씨가 온화해 한겨울에도 최저 영상 1도정도라고 알고 두꺼운 패딩은 챙겨가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이 매우 강해서(미스트랄) 체감 온도로는 -5도정도 였다. 두꺼운 패딩을 입는 사람도 많았고, 한국 학생들을 보면 전기장판을 가져와 애용했다. 본인은 추운 환경을 좋아해 살짝 두꺼운 후드집업 정도면 괜찮았다. 여름에는 햇빛이 매우 뜨겁다. 선글라스는 필수고, 양산도 많이 썼다. 양산을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생존을 위해 본인은 사용했다. 다행히도 버스에 에어컨이 있어 시원하게 버스를 탔다.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치안이 좋은 동네라고해서 자물쇠 등 여행 용품을 많이 챙겨가진 않았다. 실제로도 안전해서 사용할 일이 없었다. 밤 11시에 혼자 시내에서 기숙사까지(25분) 걸어간 경험도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PSG가 우승해 파리와 리옹 등 대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지만 엑상프로방스에서는 조용하고 안전했다. 문화충격으로는 사람들이 버스비를 잘 내지 않는다. 버스기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여유로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문화충격이었다. 학부 중간이든, 졸업이든 삶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며 날씨와 삶을 그대로 즐긴다.
파견교 국제교류부 (진행되는 프로그램, 도움받았던 내용 등)	9월 첫째주에 오리엔테이션과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다. 그 행사에서 한국인 학생들을 만났고, 복잡한 학교 건물을 둘러볼 수 있었다. 언어교육부에서 진행하는 'tandem' 프로그램이 도움되었다. 파견교 학생과 1대1 매칭되어 한 학기에 6회 이상 1시간 이상씩 만남을 갖고 보고서를 쓰는 언어교환 활동이다. 보고서는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지 작성하면 된다. 양식도 없으며 게시판에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하면 된다. 개강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언어교육부 사무실 컴퓨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주 뒤 짬 인터뷰 안내가 온다. 처음에는 어떤 계기로 신청했는지, 한 학기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언어를 배운 경험이 있는지, 어느 학습 방식이 도움이 되었는지 등 간단한 인터뷰이다. 학기가 끝날 짬에는 도움이 되었는지, 개선 또는 도움된 점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1회 더 한다. 언어교육부 담당자님이 한국분이셔서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파견교 학생들은 0.5학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교환학생은 추가 학점을 받지는 못한다. 매주 화, 목 12-14시에는 'cafe des langues'라는 상시 언어교환 프로그램이 있다. 본인이 원하는 교환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언어교육부 사무실에서 해당 언어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하면 언어와 국기가 그려져있는 종이를 주신다. 그걸 가지고 비어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문앞에 붙이면 된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희망자가 많아 이미 문앞에 그 종이가 붙어있고 사람도 많다. 한국어는 그냥 붙여놓고 점심시간에 쉬어도 된다. 가끔 파견교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 언제 나갈지는 모두 본인 자유이다.



파견교환학생 관련 건의사항 또는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엑상프로방스에 ALLSH학부 이외에도 다른 경영학부 한국인 학생과 친해졌다. 그분들은 파견교와 본교 국제교류처에서 다음에 이 학교로 파견오는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연락처를 주고받아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직접 소통하여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짧으면서 길고, 길면서 짧은 시간입니다. 많이 즐기세요. 특히 여름에 근처 바닷가에서 놀고 해변에서의 낮잠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한 번 도전해보세요. 교환학생이라는 신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한 시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학과의 주 교수님과 임 교수님을 찾아가보세요(성함은 직접 밝히지 않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귀한 교수님들이십니다.
---	---

위 본인은 해외자매결연대학 파견교환학생으로 파견을 종료하고 위와 같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7월 1일

파견자 :